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 서울지역의 생산지수는 84.9로 전년동월대비 8.7% 감소 - 8월 서울 제조업부문 출하 감소, 재고 증가로 재고감소 단계로 해석됨 ○ 서울 대형소매점 전년동월대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8.3%, 대형마트 11.5% 증가로 전체적으로 9.7% 증가 ○ 8월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물가 전년동월대비 4.5%, 신선식품지수 전년동월대비 13.3% 각각 상승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6%로, 전년동월대비 0.8%p 증가 ○ 8월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9% 증가하였으며,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8.9% 상승하며 꾸준히 증가 ○ 서울의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상승, 전국대비 0.3%p 차 ○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보합, 전국대비 1.3%p 차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보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북지역(0.0%)은 광진구(0.3%)의 상승세가 지속되며 전월대비 보합 - 강남지역(0.0%)은 0퍼트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강서구(-0.2%)를 중심으로 하락하며 전월대비 보합 ○ 8월 주택전세가격은 전세수요증가로 상승세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북지역(1.2%)은 광진구(1.7%), 노원구(1.7%)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상승폭 확대 - 강남지역(1.4%)은 강남구(2.0%), 송파구(1.8%)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상승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기준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42조 8,273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1조 9,938억 원(0.37%) 증가 ○ 서울의 8월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법인 수는 1,752개로 전년동월대비 3.9%(89개) 증가, 부모업체 수는 45개로 전년동월대비 22.4%(13개) 감소 ○ 서울 8월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수출은 48.6억 달러, 수입은 113.8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29.2%, 31.7% 증가 - 수출 1순위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

| 생 · 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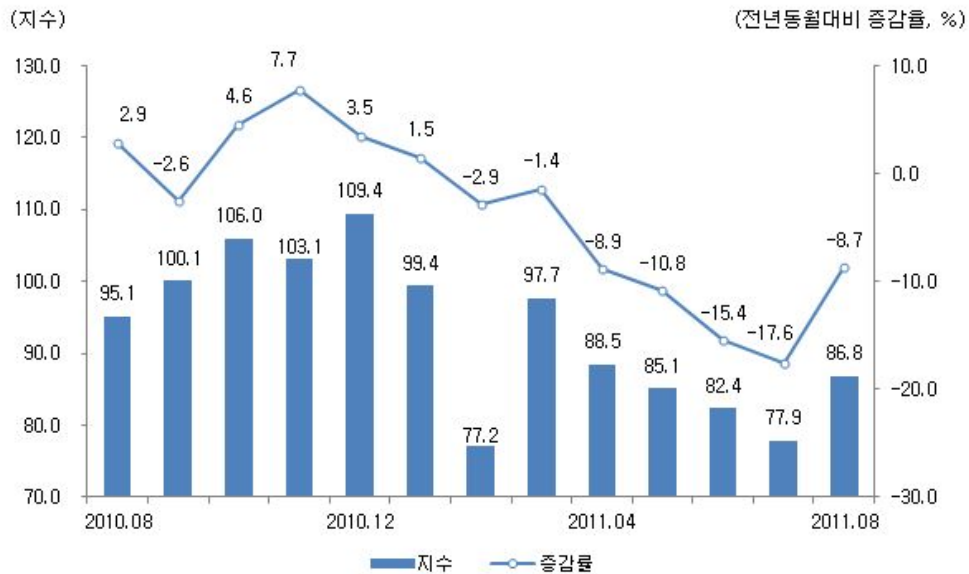
서울의 8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8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8월 산업생산지수는 84.9(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8.7% 감소
- 중공업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29.9% 감소,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8% 증가
- 전년동월대비 기타제품(33.8%) 증가, 기계장비(-48.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17.7%), 전기장비(-23.9%)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중공업 부문의 감소가 서울의 산업생산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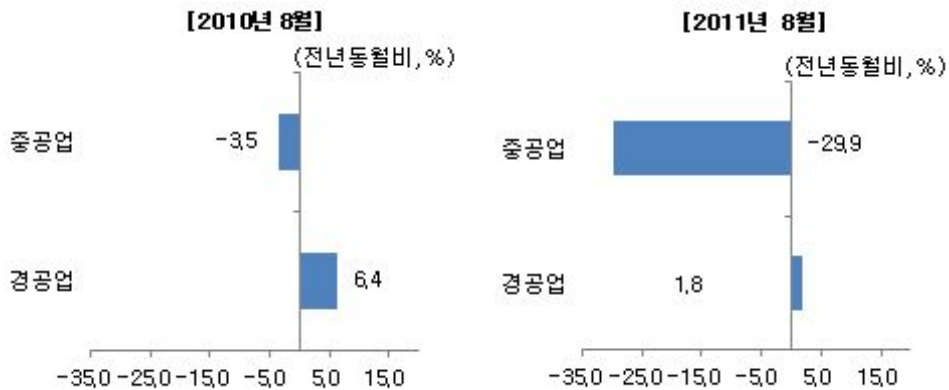
■ 전국의 8월 광공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8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9% 증가, 전월대비로는 0.3% 감소
-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영상음향통신(-16.2%), 전기장비(-8.7%) 등은 부진하였으나 자동차(23.6%), 반도체 및 부품(7.0%) 등으로 광공업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부동산임대(-3.4%)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10.6%), 도매소매(4.6%),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6.0%), 운수(4.6%), 보건·사회복지(5.2%) 등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산업생산(중공업, 경공업) 증감률

| 출하 · 재고 순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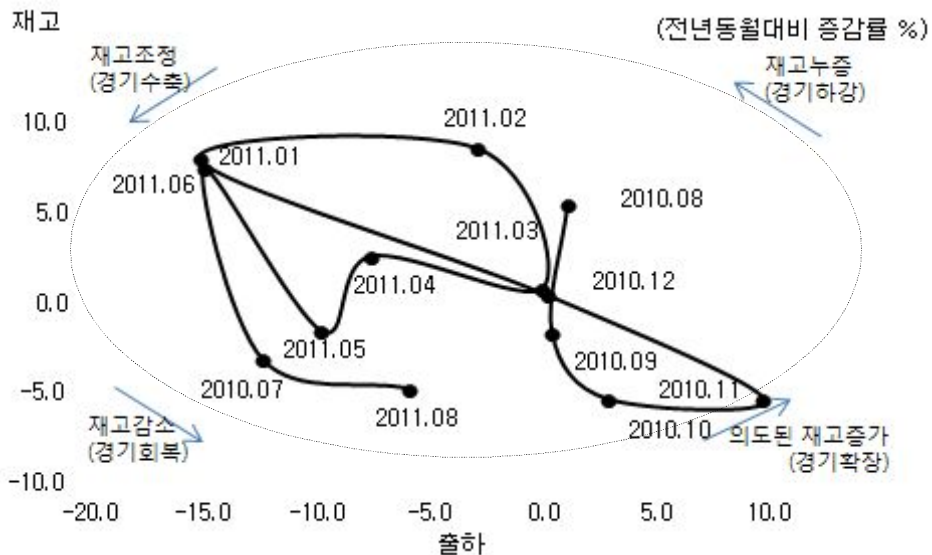
서울의 8월 제조업부문 재고감소 단계

■ 서울의 8월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출하 감소, 재고 증가

- 서울의 8월 재고지수는 152.0(2005=100.0)로 전년동월대비 4.8% 감소
- 전년동월대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의복 및 모피,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
- 출하 감소, 재고 증가하여 재고감소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참고>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경기수축기	경기회복기	경기확장기	경기하강기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 소 · 비 |

서울의 8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8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8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5,647억원로 전년동월대비 9.7% 증가
-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8.3% 증가하였고 대형마트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백화점 정기바겐세일 등의 영향과 여름휴가 등의 계절적 요인이 판매액을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됨

■ 서울의 8월 대형종합소매업의 판매액 중 패션용품이 1위

- 백화점 판매액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패션용품(51.3%)이며, 대형마트는 식품(59.8%)인 것으로 나타났음
- 권역별로는 4권역(강남, 서초, 송파, 강동)이 35.7%인 5천580억원을 판매하였고, 다음으로 3권역(동작, 관악, 영등포, 금천, 구로, 양천, 강서), 1권역(종로, 중구, 용산, 마포, 서대문, 은평), 2권역(광진,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노원, 강북, 도봉)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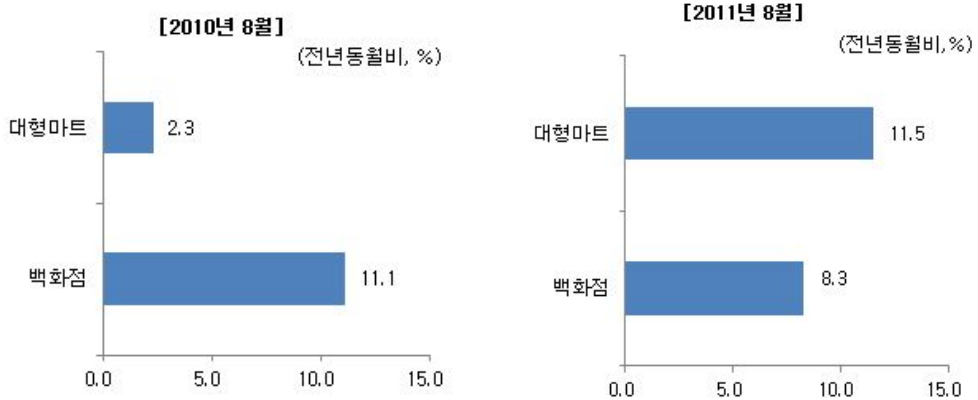
■ 전국의 8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8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4조 8,894억으로 전년동월대비 10.2% 증가
-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10.9% 증가, 대형마트는 9.8% 증가
- 유형별로는 컴퓨터통신기기, 가전제품, 승용차 등의 내구재가 12.6% , 오락, 의복 등의 준내구재 4.0% 증가, 식료품, 화장품 등 비내구재는 2.1%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물 · 가 |

서울의 8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1.3(2005년=100.0)으로 전월대비 0.7%, 전년동월대비 4.8% 각각 상승
- 상품부문은 전년동월대비 8.1% 상승, 그 중 농축수산물은 13.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서비스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3.0% 상승하였으며 그 중 집세는 4.8%, 공공서비스 1.4%, 개인서비스 3.0% 각각 상승

■ 서울의 8월 전년동월대비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각각 상승

- 소비자들의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7%, 전년동월대비 4.5% 각각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9.0%, 전년동월대비 13.3% 각각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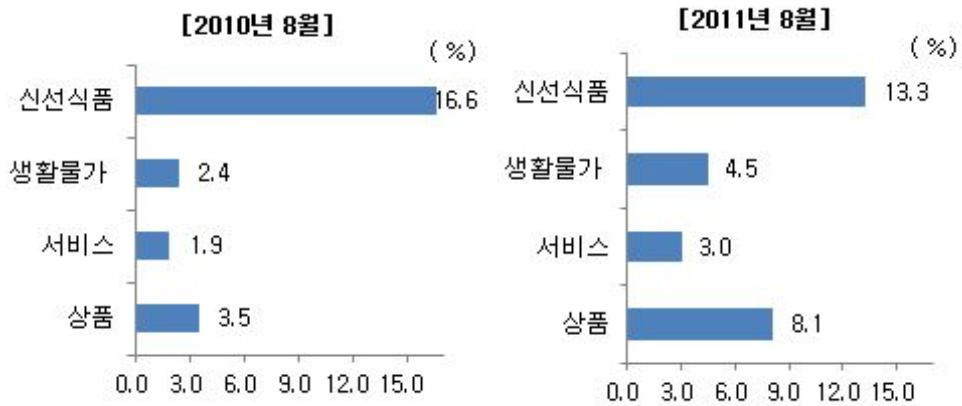
■ 전국 8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상승

- 전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2.5(2005년=100)로 전월대비 0.9% 상승, 전년동월대 비로는 5.3% 상승하여 2008년 9월의 5.1% 상승 이후 35개월 만에 5% 대로 진입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9%, 전년동월대비 5.2% 각각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 비 9.9%, 전년동월대비 13.8% 상승
- 16개 광역시도별로 전월대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대구, 전남, 경북 3개 시도는 1.0~1.1%씩 상승, 광주, 강원 등 4개 시도는 0.9%씩 상승, 서울, 경기 등 9개 시도는 0.7~0.8%씩 상승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2005=100)

〈그림〉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그림〉 서울의 소비자 물가 동향

■ 서울의 8월 전월대비 마늘,배추, 쌀 등 가격 상승

- 소비자들의 생활필수 품목 중 신선식품의 전월대비 가격동향은 채소류의 경우 평균 7.8% 상승, 양곡과 수산물은 전월대비 평균 2.2% 하락
- 청과류 중 마늘 8.6%, 배추 7.0% 각각 상승하였으며, 양파 1.8%, 파는 21.8% 등은 각각 하락
- 수산물의 경우 전월대비 멸치는 4.5%, 고등어는 2.7% 각각 하락, 양곡류인 쌀은 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전월대비, 원, %)

품목	 마늘	 배추	 쌀
가격	10,713원	4,903원	42,143원
전월비	8.6%	7.0%	0.6%

품목	 고등어	 멸치	 돼지고기
가격	2,500원	2,463원	4,530원
전월비	-2.7%	-4.5%	-20.8%

주 : 멸치(건멸치), 고등어(중품), 배추(가을(상품), 고랭지(상품), 봄(상품), 월동(상품)),마늘(간마늘(상품)), 돼지고기(박피 암) 기준,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그림> 서울시 신선식품 중 상위 6개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서울의 8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8월 경제활동인구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8월 15세 이상 인구는 8,39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천명(0.1%)이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5,25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4천명(1.4%)이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2.6%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
- 비경제활동인구는 3,14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8천명(-2.1%)이 감소

■ 전국의 8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전국의 8월 15세 이상 인구는 4,111만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만8천명(1.2%) 증가, 경제활동인구는 2,525만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2만1천명(1.7%)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1.4%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3.4%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하였고, 여자는 50.0%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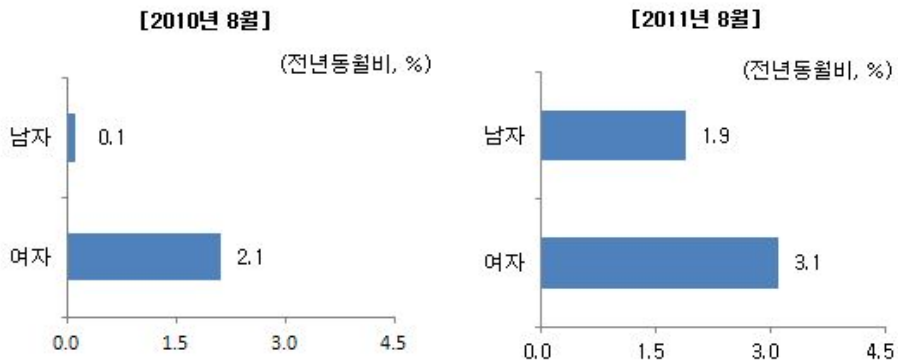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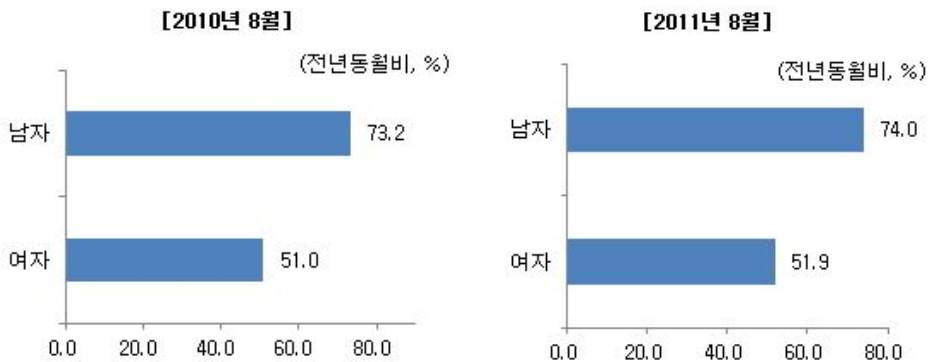
〈그림〉 서울의 경제활동 인구 및 참가율 추이

■ 서울의 8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경제활동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3,011천명, 여자는 2,24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1.9%, 여자는 3.1% 각각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남자는 74.0%, 여자는 51.9%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0.8%p, 여자는 0.9%p로 각각 증가



〈그림〉 서울 성별 경제활동인구 증감율



〈그림〉 서울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 취 · 업 · 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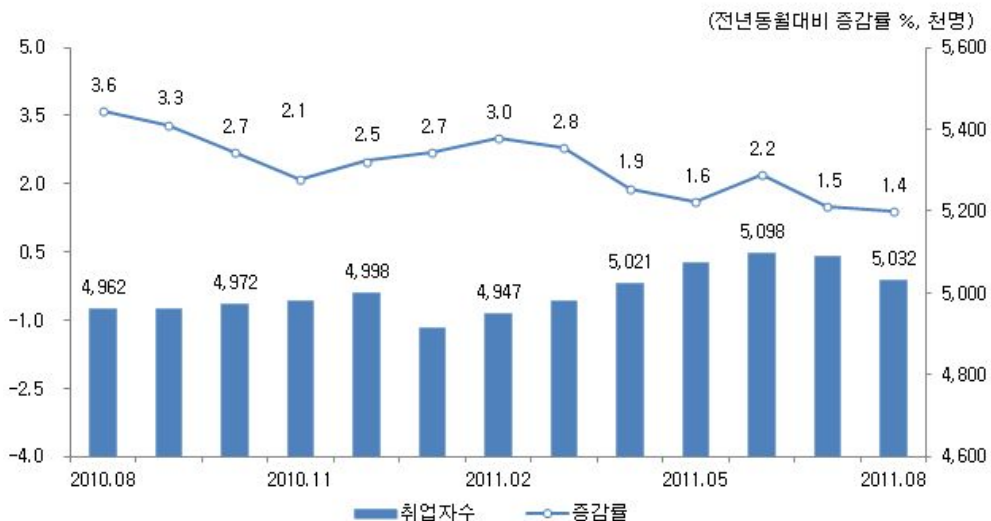
서울의 8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8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8월 취업자는 5,03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0천명(1.4%)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63천명, 여자는 2,16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27천명(0.9%), 여자는 43천명(2.0%)이 각각 증가
- 서울과(1.4%) 전국(2.0%)의 취업자 수는 0.6%p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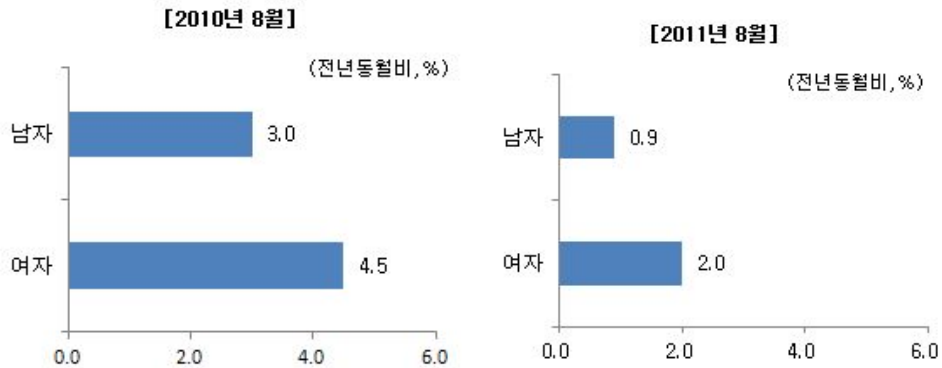
■ 전국의 8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8월 취업자는 2,449만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9만명(2.0%)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27만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만7천명(1.9%) 증가하였고, 여자는 1,022만2천명으로 22만3천명(2.2%)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의 성별 취업자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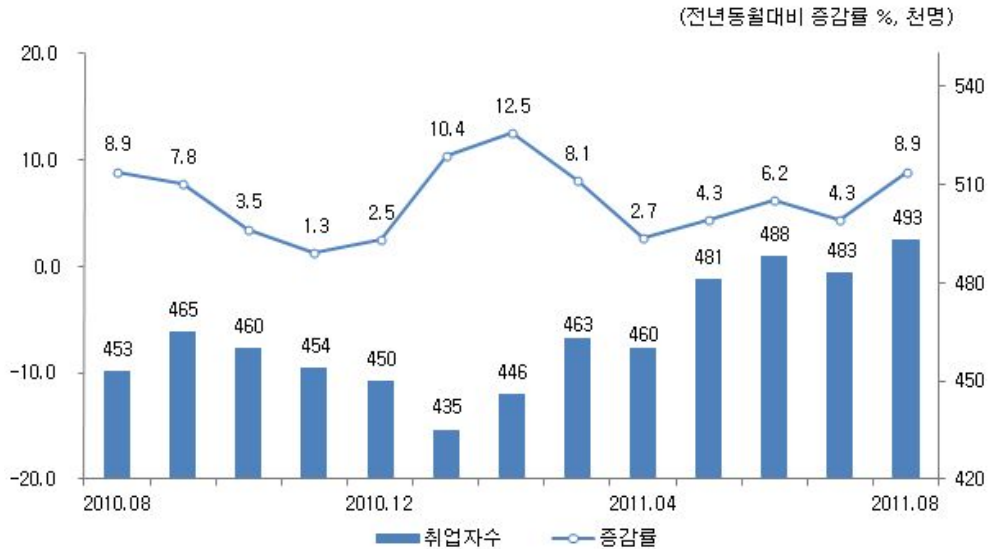
■ 서울의 8월 청년층(15세~29세),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 서울의 8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9% 증가
- 서울의 8월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8.9% 상승하여 꾸준히 플러스 증가세를 이어감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15세~29세)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고령층 취업자(60세 이상) 추이

■ 산업별로 농림어업, 건설업, 제조업 각각 감소

- 산업별 전년동월대비 전가운수통산금융업 52천명(6.7%), 사업개안공공서비스업 52천명(2.7%), 도소매음식숙박업 29천명(2.2%)이 각각 증가
- 농림어업 1천명(-16.4%), 건설업 33천명(-8.3%), 제조업 23천명(-4.2%)은 각각 감소

■ 직업별로 전가운수통산금융업 및 공공서비스업 등은 증가

- 전년동월대비 전가운수통산금융업 64천명(8.2%), 사업개안공공서비스업 72천명(3.8%)이 각각 증가
- 건설업 33천명(-8.1%), 제조업 13천명(-2.4%), 도소매음식숙박업 20천명(-1.5%), 농림어업 0.1천명(-1.4%)은 각각 감소

■ 종사상지위별로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각각 증가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주는 전년동월대비 16천명(-1.6%), 무급가족종사자는 4천명(-2.1%)이 각각 감소
- 임금근로자 중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191천명(9.1%)이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는 79천명(-6.3%), 일용근로자는 23천명(-5.3%)이 각각 감소

| 고 · 용 · 률 · 및 · 실 · 업 · 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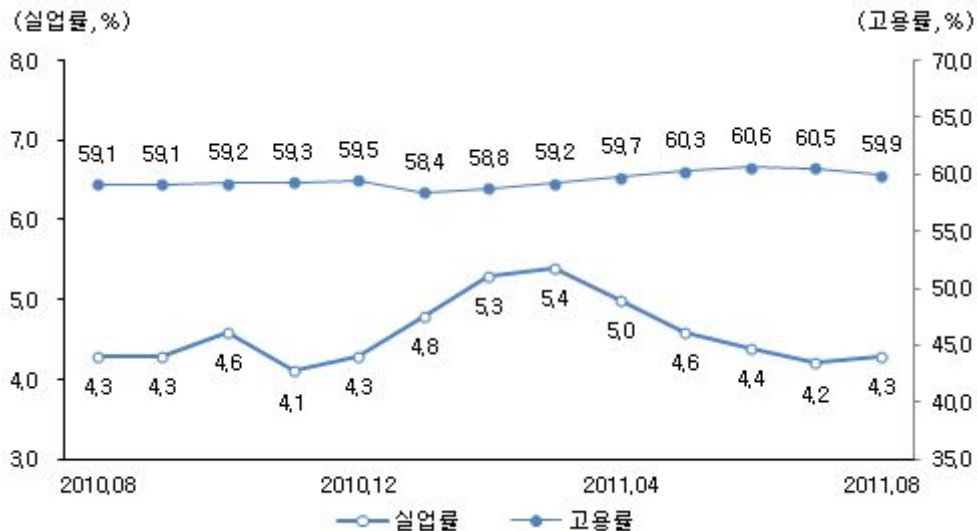
서울의 8월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상승, 실업률 보합

■ 서울의 8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8월 고용률은 59.9%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0.4%, 여자는 50.1%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0.8%p, 0.9%p 상승
- 서울의 고용률은 전국(59.6%) 고용률과 0.3%p 차이

■ 서울의 8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보합

- 서울의 8월 실업자는 22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천명(1.7%)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8천명, 여자는 7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2천명(1.2%), 여자는 2천명(2.6%)이 각각 증가
- 실업률은 4.3%로 전년동월대비 보합이었으며, 전국대비(3.0%) 1.3%p 차이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9%로 전년동월과 동일하였고, 여자는 3.5%로 0.1%p 상승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실업률, 고용률 추이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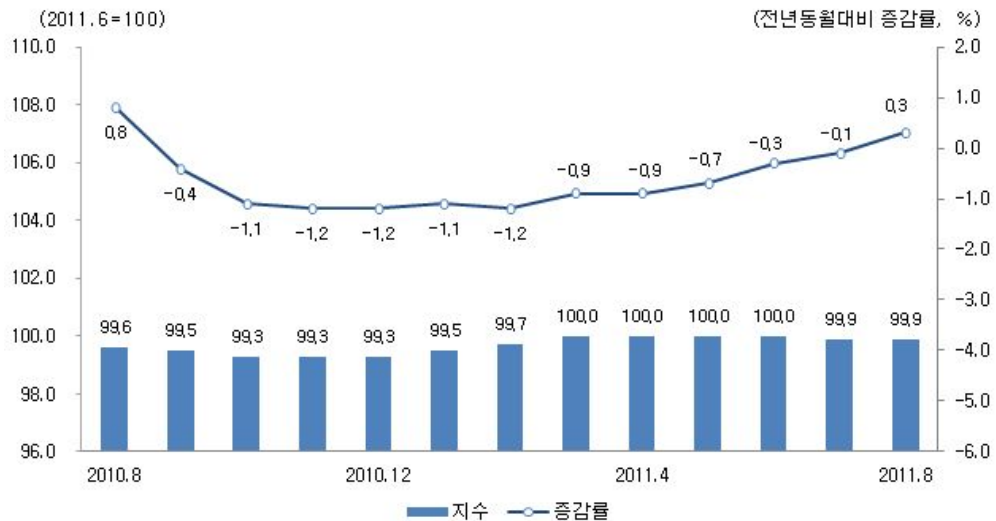
서울의 8월 주택매매가격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8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보합

-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0%로 보합
- 주택유형별로 아파트는 지난 5월부터 하락세를 이어가며 전월대비 0.1% 하락한 가운데,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각각 전월대비 1.5%, 0.6% 상승

■ 전국의 8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5% 상승 가운데, 광역시와 기타지방은 전월에 이어 공급물량 부족과 매수심리 호전 등으로 각각 전월대비 0.8%, 1.0%로 상승세 지속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강북지역은 광진구를 중심으로 상승세 지속 가운데, 노원구와 도봉구는 하락하며 전월대비 보합**
 - 광진구는 아파트가 2개월 연속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소형의 저가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3% 상승
 - 동대문구는 실수요자 중심의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로 전월대비 0.1% 소폭 상승
 - 노원구는 매도물량에 비해 매수세 부족으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 신용등급 하락이 매수심리에 부담을 주면서 전월대비 0.2% 하락

- **강남지역은 아파트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강서구와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하락하며 전월대비 보합**
 - 강서구는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전월대비 0.2% 하락
 - 영등포구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수세가 감소하여 거래부진으로 전월대비 0.1% 소폭 하락

- **서울의 8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보합**
 - 서울의 8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평균 1793.0만원으로 전월대비 보합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3,262만원), 서초구(2,877만원), 용산구(2,547만원), 송파구(2,381만원), 양천구(1,918만원), 광진구(1,869만원), 강동구(1,823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992만원), 도봉구(1,098만원), 중랑구(1,130만원), 강북구(1,137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그림〉 아파트 매매가격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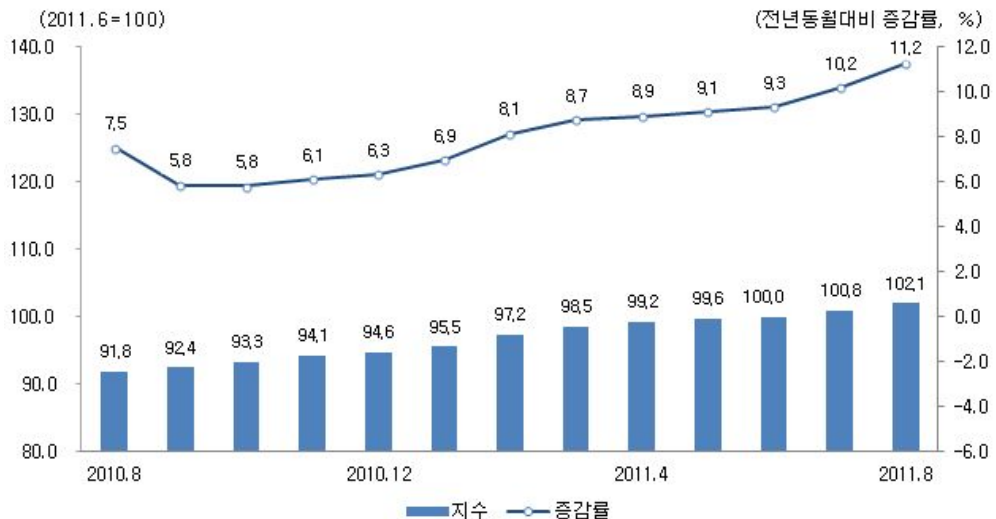
서울의 8월 주택전세가격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8월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높은 상승폭

-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전세가격은 매매시장 침체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로 각각 전월대비 1.3%, 1.2%로 상승세 지속
- 주택유형별로 아파트는 전월대비 1.7% 상승한 가운데, 단독주택과 연립주택도 각각 0.5%, 0.8% 상승

■ 전국의 8월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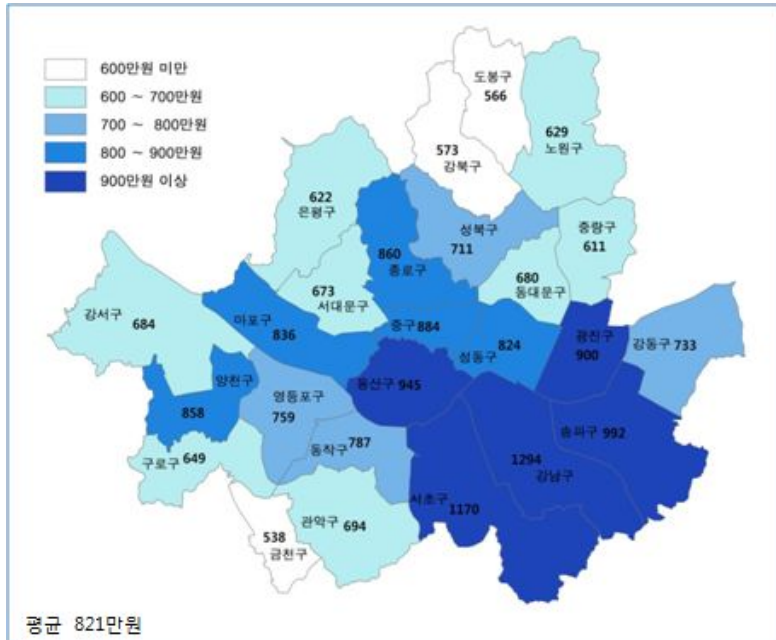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1.1%로 높은 상승폭을 보이는 가운데, 광역시와 기타 지방도 각각 전월대비 0.8%, 0.9%로 상승세 지속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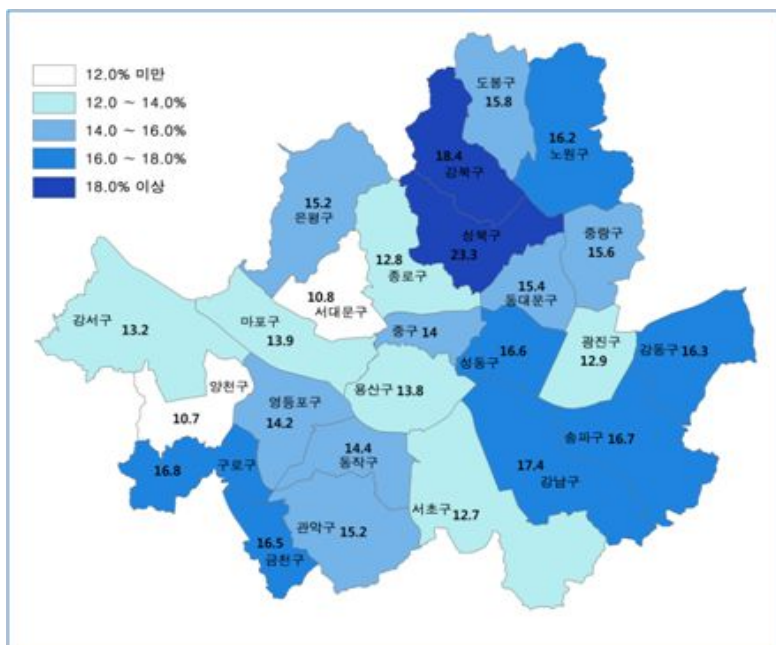
〈그림〉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강북지역은 광진구, 노원구에서 비교적 높은 상승폭을 보이며 전월대비 1.2% 상승**
 - 광진구는 중·소형 중심의 물량이 부족한 가운데, 강남지역의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이주해온 수요가 증가하며 전월대비 1.7% 상승
 - 노원구는 비교적 저가의 소형 아파트 물량이 풍부하여 유입되는 수요로 상승세를 보이며 전월대비 1.7% 상승
- **강남지역은 강남구, 송파구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1.4% 상승**
 - 강남구는 강남지역의 전세물량이 한정되어 있는 가운데, 최근 청실아파트와 우성아파트의 이주수요가 증가하면서 비교적 큰 폭으로 전월대비 2.0% 상승
 - 송파구는 기존 세입자 및 매수 여력이 있는 사람들도 전세를 선호하며 물량이 부족해진 가운데 인근 강남구, 송파구의 전세가격 상승으로 유입된 수요도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1.8% 상승
- **서울의 8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월대비 큰 폭으로 상승**
 - 서울의 8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평균 820.64만원으로 전월(808.62만원)대비 큰 폭으로 상승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1,294만원), 서초구(1,170만원), 송파구(992만원), 용산구(945만원), 광진구(900만원), 중구(884만원), 종로구(860만원), 양천구(858만원), 마포구(836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538만원), 도봉구(566만원), 강북구(573만원), 중랑구(611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의 8월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전월대비 상승**
 - 8월 중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48.9%로 전월(48.0%)보다 0.9%p 상승하며 상승 지속세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전국 평균 59.1% 보다 10.2%p 낮은 수준이며 전국과의 격차는 전월(10.7%p)보다 하락
 - 지역적으로 보면 그 비율은 강북 51.3%, 강남 46.9%로 강북이 강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강남·북간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상승세 지속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8월 코스피 큰 폭으로 하락

■ 8월 중 국고채 전월대비 큰 폭 하락

- 국고채(3년)금리는 미국 경기둔화 및 신용등급 하향조정, 유럽지역 국가채무문제 확산 등 해외 불안요인 영향으로 전월대비 2.0%p 하락하여 3.57% 기록

■ 회사채 금리 전월대비 하락, CD 금리는 상승세 둔화

- 회사채(3년) 금리는 전월대비 0.19%p 하락하여 8월 중 4.29%로 마감
- 8월 중 CD(91일) 금리는 3.59%로 전월대비 보합

■ 장 · 단기 금리차는 전월대비 큰 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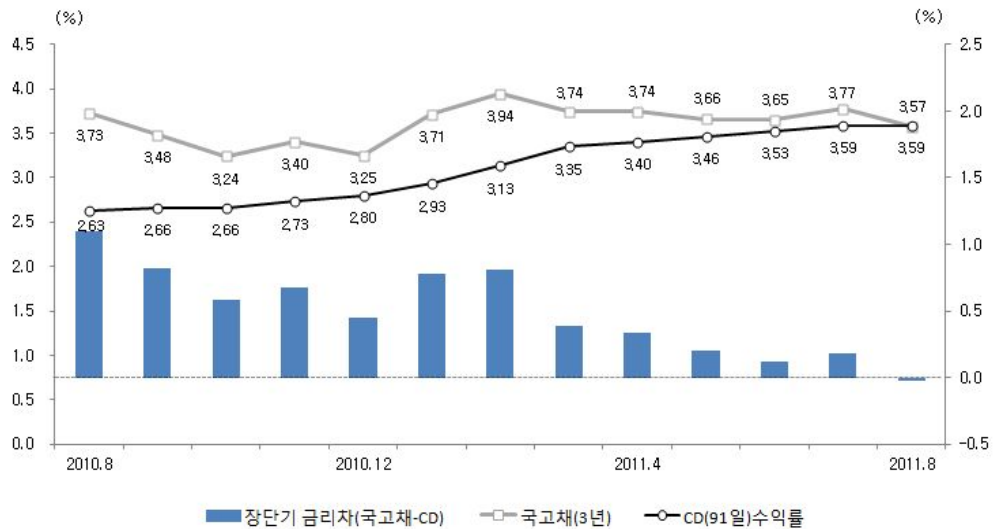
- 8월 중 장 · 단기 금리차는 CD(단기) 금리의 보합에도 불구하고 국고채(장기) 금리의 큰 폭 하락으로 전월대비 0.20%p 등락하여 -0.02%로 마감

■ KOSPI 지수 전월대비 큰 폭으로 하락

- 8월 중 코스피는 해외 불안요인의 영향 등으로 최저치인 1,711까지 급락하였다가 하순 이후 저가매수자금 유입,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 완화 등에 힘입어 반등하여 1869.4p로 마감

■ 8월 중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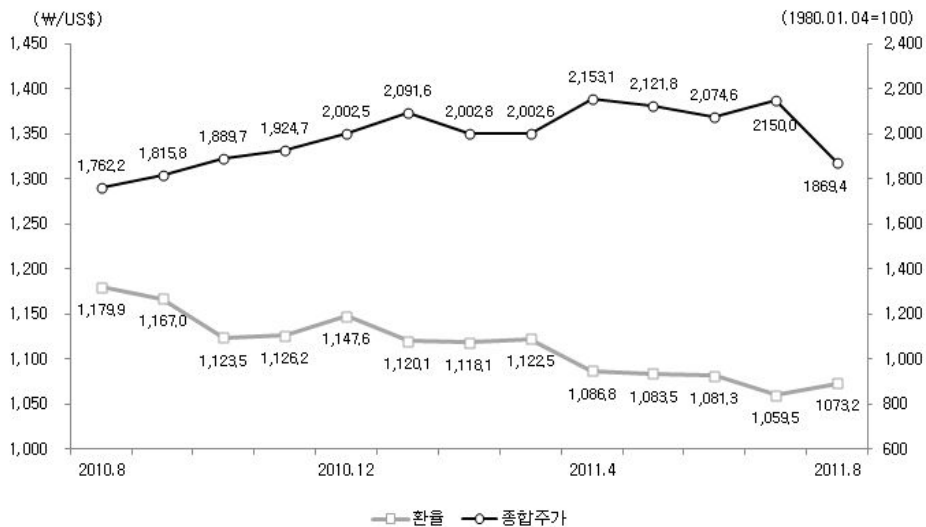
- 원/달러 환율은 전월대비 13.6원 상승하여 8월 중으로 1,073.1원으로 마감



주 : 기간 중 평균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주 : 기간 중 평균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7월 기준 서울지역 전체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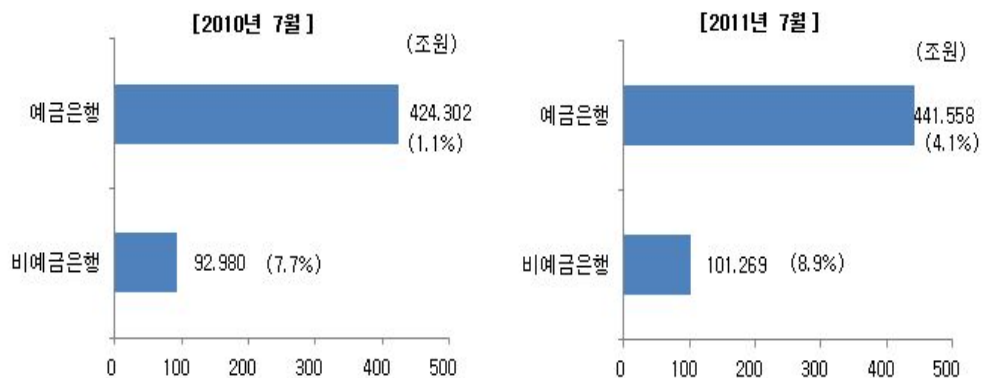
- 7월 중 서울지역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542조 8,273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1조 9,938억원(0.37%) 증가
- 7월 중 전국의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1,374조 1,054억원으로 전월대비 9조 4,234억원(0.69%) 증가



주 : 말잔 금액,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및 증감률 추이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

■ 6월 중 은행 가계대출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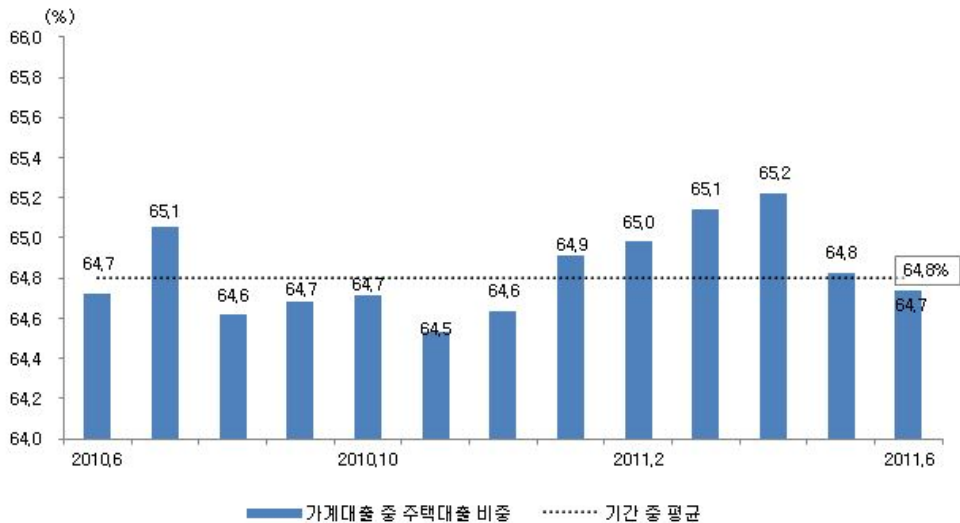
- 6월 중 은행 가계대출은 173조 82억원으로 전월대비 895억원(0.5%) 증가하였고 그 중 주택대출은 111조 828억원(64.7%)으로 전년동월대비 4.1% 증가



주 : 말잔 금액,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이외의 대출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주택대출의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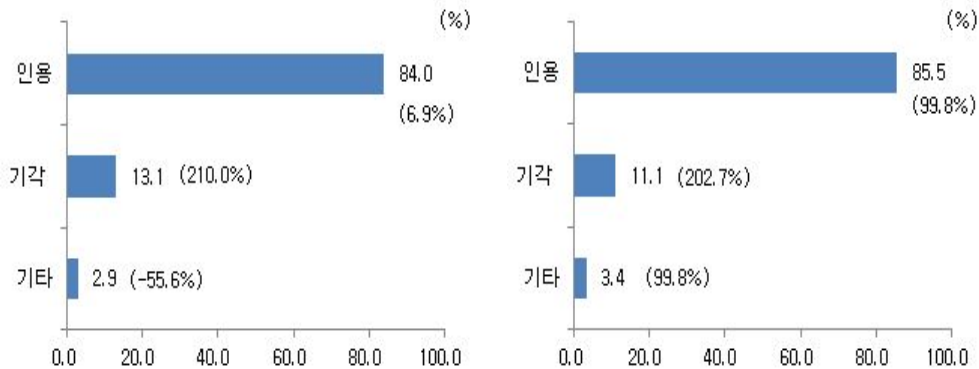
■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대비 감소

- 8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1,088명으로 전월대비 5.7%, 전년동월대비 25.1% 감소
- 개인파산 선고전 기각률은 13.1%로 전월대비 2070.0% 증가하였고 면책 기각률은 11.1%로 전월대비 1766.7% 증가



자료 : 대법원

〈그림〉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



주 : 인용은 정당하다고 인정, 기각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대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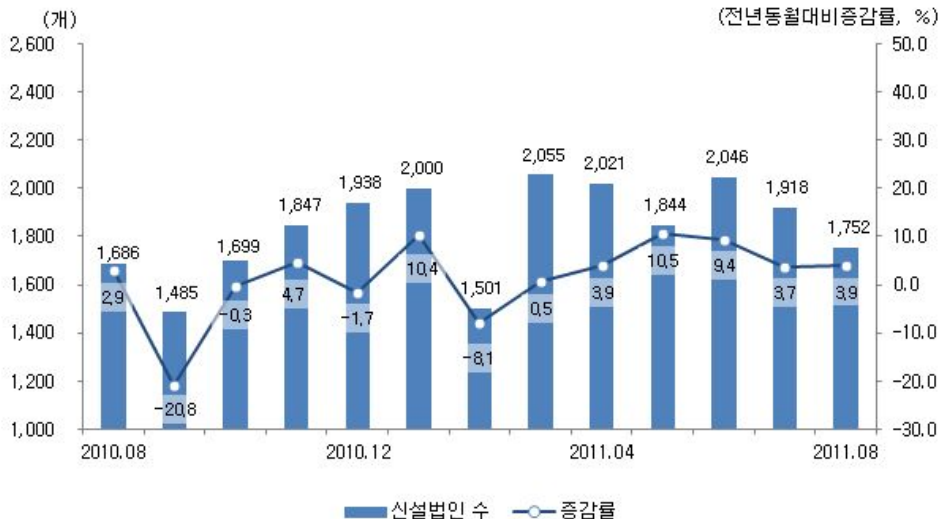
〈그림〉 8월 개인파산 선고전 처리현황

〈그림〉 8월 면책 처리현황

| 신 · 설 · 및 · 부 · 도 · 법 · 인 · 동 · 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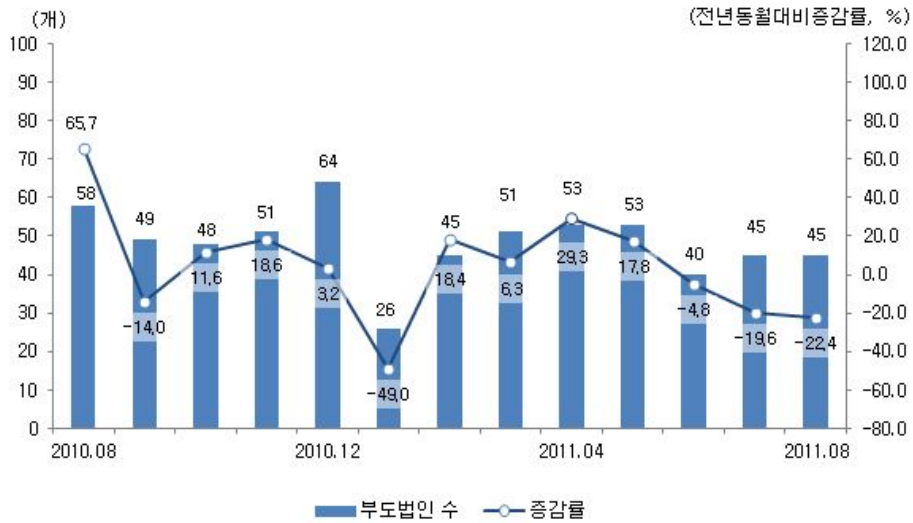
서울의 8월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8월 신설법인 수 전월대비 크게 감소, 업종별로도 신설법인 감소
 -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752개로 전월대비 8.7%(166개) 감소, 전년동월대비 3.9%(89개) 증가
 - 업종별로는 건설 및 설비업과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각각 전월대비 20.8%(166개), 11.9%(25개), 7.3%(33개) 감소
- 서울의 8월 부도업체 수 전월대비 보합, 업종별로는 제조업 부도법인 증가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45개로 전월대비 보합, 전년동월대비 22.4%(13개) 감소
 -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전월대비 7.1%(1개) 증가한 반면, 건설 및 설비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전월대비 12.5%(1개), 4.3%(1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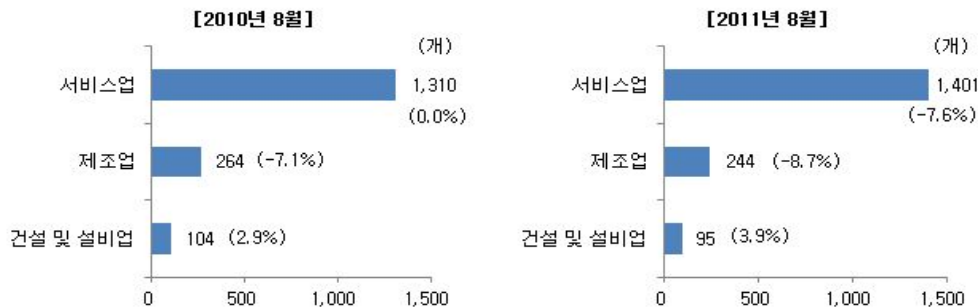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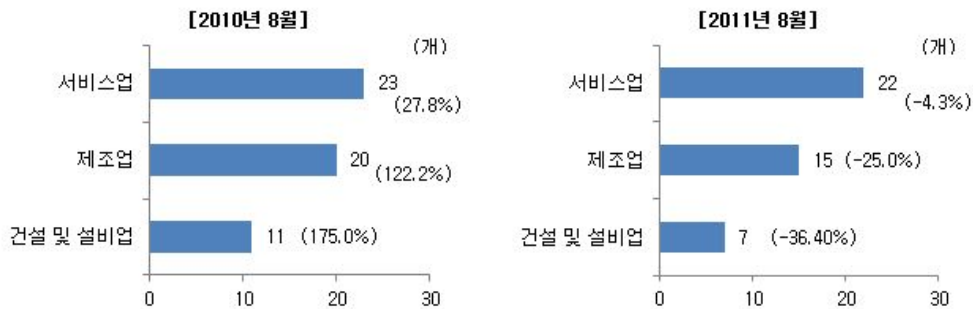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그림〉 서울시 산업별 신설법인 현황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그림〉 서울시 산업별 부도법인 현황

■ 서울의 어음부도율 전월대비 보합

- 8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전월과 동일한 0.01% 이고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38.9배로 전월(42.6배)에 비해 감소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어음부도율 및 신설/부도법인 배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서울의 8월 신용보증 공급금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 보증지원 건수 및 금액 전월대비 증가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8월 중 3,236건, 89,613백만원으로 전월대비 보증건수 26.4%, 보증금액 15.8% 증가하였고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8.3% 감소
- 한편 전년 동월대비 보증지원 건수 및 금액은 각각 54.9%, 17.7% 감소하였고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82.2% 증가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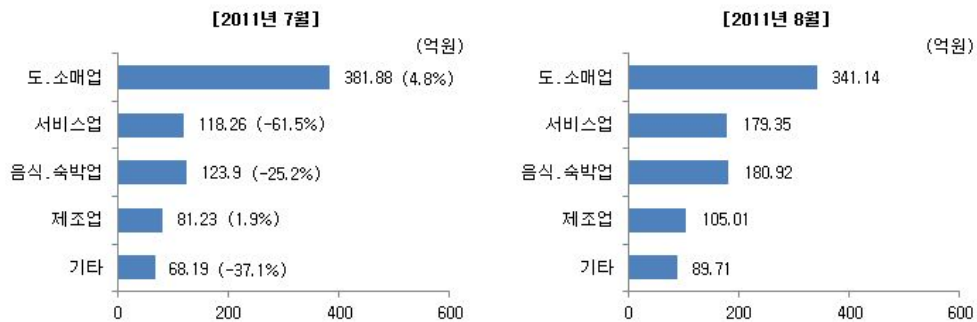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건당 평균 금액 추이

■ 제조업 지원 건수 및 금액 비중 전월대비 상승

- 8월 중 제조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11.7%로 전월(10.5%)대비 1.2%p 증가한 반면, 도·소매업종에 대한 지원은 38.1%로 전월(49.4%)대비 11.3%p 감소
- 보증건수 기준 시 제조업종은 9.8%로 전월(7.5%)대비 2.3%p 증가하였으며, 도·소매업종은 36.8%로 전월(43.7%)대비 6.9%p 감소

■ 소기업 지원 건수 및 금액 비중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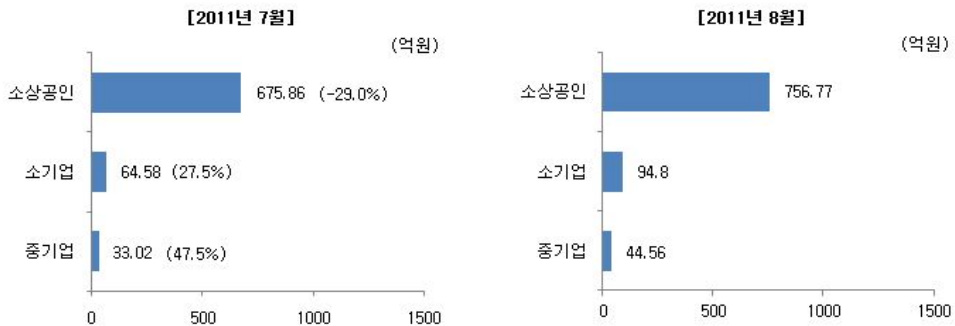
-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이 금액기준 84.4%, 건수기준 93.6%로 전월 대비 각각 3.0%p, 1.2%p 감소
- 한편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 10.6%, 건수기준 4.6%로 전월대비 각각 2.2%p, 1.1%p 증가하였고 중기업 비중도 금액기준으로 5.0%, 건수기준으로는 1.8%로 전월대비 각각 0.8%p, 0.1%p 증가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

| 수 · 출 · 입 · 동 · 향 |

서울의 8월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8월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9.2% 증가한 48.6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전년동월 대비 31.7% 증가한 113.8억 달러 기록
- 전국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5.9% 증가한 459.3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전년동월 대비 28.9% 증가한 454.6억 달러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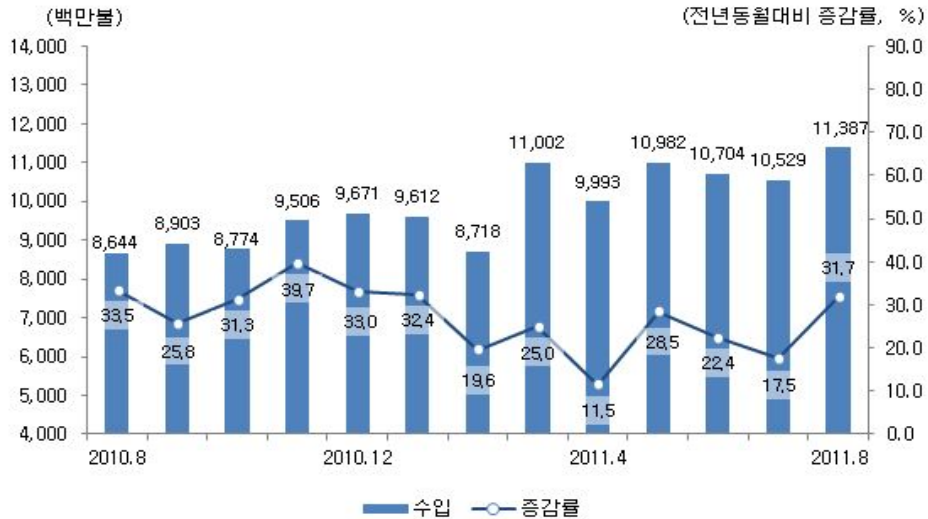
■ 서울의 8월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623백만불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자동차부품, 반도체, 합성고무, 합성수지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석유제품이 969백만불을 기록하였고 다음은 항공기 및 부품, 반도체, 컴퓨터, 의류 등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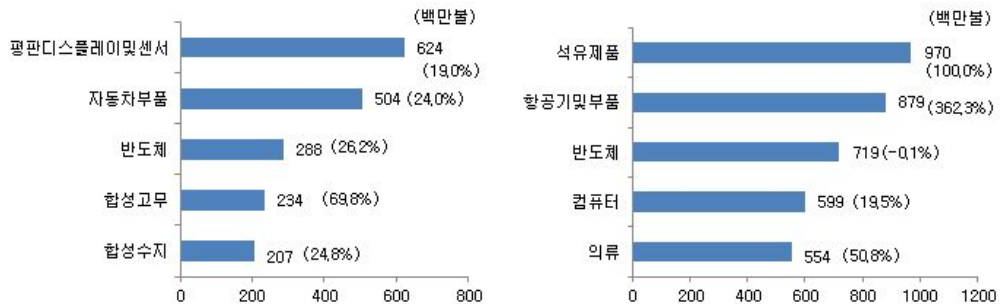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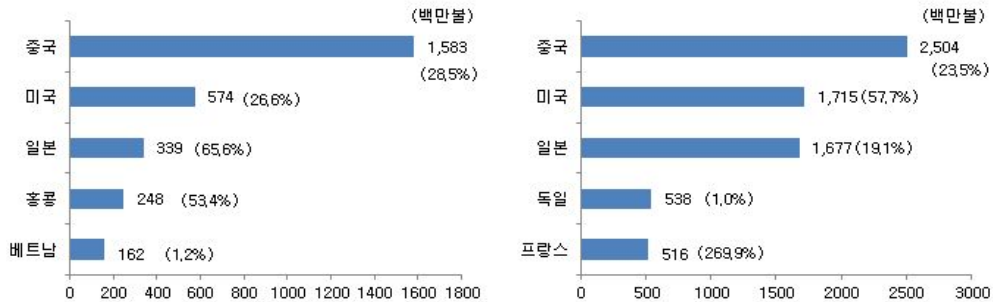
〈그림〉 8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

〈그림〉 8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

■ 서울의 8월 수출입국 1순위는 중국

- 서울의 국가별 수출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28.5% 증가한 1,583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 일본, 홍콩, 베트남 순
- 일본에 대한 수출이 전월동월대비 65.6%로 증가하여 339백만불 기록

- 서울의 국가별 수입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23.5% 증가한 2,504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순
- 프랑스로부터의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269.9%로 크게 증가하여 516백만불 기록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무역협회

〈그림〉 8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

〈그림〉 8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

〈표〉 8월 주요 FTA 대상국별 서울시 수출입 품목

구분	순위	품목명	수출		품목명	수입	
			천불	증가율		천불	증가율
미국		합계	573,621	26.6	합계	1,715,365	57.7
	1	자동차부품	127,858	20.8	항공기및부품	635,938	269.8
	2	무선통신기기	68,311	14.5	육류	78,361	67.4
	3	고무제품	64,704	48.3	기초유분	65,836	96.2
싱가포르		합계	57,521	-21.7	합계	273,513	12.8
	1	반도체	21,753	25.8	반도체	87,974	-22.9
	2	컴퓨터	2,921	-46.3	석유제품	58,959	3,440.00
	3	전선	2,047	1,811.2	컴퓨터	32,029	-3.3
페루		합계	6,592	22.5	합계	3,271	1.7
	1	합성수지	1,611	762.9	금은및백금	1,508	89.4
	2	합성고무	907	31	수산물가공품	434	828.4
	3	고무제품	472	25	의류	374	3
칠레		합계	11,121	-9.5	합계	61,476	46.9
	1	자동차	2,930	178.8	동제품	26,631	82.4
	2	고무제품	1,736	73.4	육류	10,401	9.4
	3	자동차부품	988	261.5	제지원료	6,645	27.2
인도		합계	121,168	33.8	합계	339,598	125.1
	1	합성고무	28,542	-11	석유제품	230,045	226.7
	2	합성수지	17,229	118.7	기초유분	30,332	750.9
	3	자동차부품	16,166	16.6	천연섬유사	17,227	-42